

예술로서의 패션

- Morris Weitz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을 중심으로 -

Fashion as Art

- Based on Morris Weitz's Open Concept of Art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이예영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art-time lecturer : Yhe-You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설문 조사 결과 |
| II. 연구 방법 | VI. 결론 |
| I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V. Morris Weitz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of fashion as art by examining whether or not university students, rather than professional art critics, consider fashion to be art. The survey subjects were 146 university students, randomly chosen from textiles and clothing-related classes offered in 4 different universities in Seoul. A survey with the following 3 questions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2005 and June 2006: 1. What is art? 2. Is fashion art? 3. Explain the reason why fashion is, or is not, art. Morris Weitz's open concept of art is applied to discuss whether fashion can be classified as art. According to Weitz, there are no universal commonalities among arts. Therefore, art can be defined based on similarities among preexisting art forms and movements. As a result, respondents mentioned the following as characteristics of art: expressiveness, creativity, influence on viewers' emotion, tendency to make life bountiful, particular behaviors or objects, something valuable, formalities, etc. These answers parallel the features of art discussed by professional art critics. In addition, 12 of the 146 respondents considered fashion was not art, 20 placed it on the border while the remaining 114 affirmed a positive relation. Respondents who considered fashion to be art or placed it on the border listed the similar features mentioned in the answers to the first question as similarities between fashion and art. On the other hand, features of fashion such as commercial, whimsical, impermanent and utilitarian properties were answered as dissimilarities between fashion and art. However, these dissimilarities do not serve as obstacles for considering fashion as art, since Weitz's open concept of art does not

assume the existence of universal traits of art. Therefore, referring to Weitz's open concept of art, fashion can be considered as art, since reasonable similarities between fashion and art were designated b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주제어(Key Words): 패션(fashion), 예술(art), 열린 개념(open concept)

I. 서론

복식미학을 정의하기에 앞서 미학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면, '감성적'이란 뜻의 라틴어 'Aethetica'에서 유래한 단어인 미학(aesthetics)은 미와 예술과 관련된 감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강순근, 1995: 10-20). 미학의 연구 대상인 미와 예술과 관련해, 임범송과 김해룡(1990: 24-26)은 미학의 연구 범위를 심미적 대상과 심미적 주체를 고려하여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를 연구하는 것으로 미의 본질, 특징, 범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심미적 주체의 심미적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에 관한 연구로 심미적 의식의 법칙이나 생성 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심미적 의식의 물질적 형태와의 집중적 표현'인 예술을 연구하는 것으로, 예술을 떠난 미학 연구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추상적 연구에 그치게 되므로 미학에 있어서 예술은 핵심적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식미학은 복식과 관련된 감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복식과 관련된 미와 미의식, 그리고 예술로서의 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식미학의 중심에 있는 복식이 과연 예술인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우선 복식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복식은 영어로 dress에 해당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변형은 물론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외모, 장신구, 의복 등이 모두 복식에 해당한다 (Roach-Higgins & Eicher, 1992). 이러한 종합적 의미의 복식과 관련된 옷을 만드는 작업이 예술인지 아닌지에 관한 논쟁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Tartarkiewicz(1980)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르네상스 초기까지 예술이란 규칙에 근거한 기술을 의미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수학, 천문학, 기하학과 같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기술을 교양예술(liberal arts)이라 하였고,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회화, 조각, 건축, 도예, 의복 제작 등의 기술을 범속예술(common arts)이라 불렀는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중세 내내 지속되었다. 하지만, 르네상스시대에 와서 화가, 조각가, 건축가 등을 포함한 오늘날의 순수예술가들(fine artists)은 자신들이 실용성 보다는 순수한 미를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공예와 순수미술을 구분하려 하였다. 그 결과 순수예술이 공예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게 되었다. 이로써 과학을 포함하는 교양예술과 공예는 예술의 영역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John Ruskin은 산업혁명 이후 예술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채 대량생산을 통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공예품들과 기술자들의 처지에 반발하여 "인간이 기계의 주인으로서 예술적인 장인 기술의 부활과 함께 노동자의 권위 회복"을 주장하였다 (김민자, 2004: 49-51). Ruskin의 영향을 받은 William Morris는 공예와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며, 중세 고딕시대의 수공예 정신을 부활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김민자, 2004: 51-55). 이후 의복 제작을 포함하는 공예가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의 대상이며 복식에 포함되는 개념인 의복은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Kaiser(1997: 4)는 패션을 '과정'과 '대상'으로 설명하였는데, 과정으로서의 패션은 새롭게 창조되어 대중에게 소개된 후 널리 받아들여지는 역동적인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고 (Spores, 1979: 5), 대상으로서의 패션은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Kefgen & Touchie-Specht, 1986). 그러므로 대상적 개념으로서의 패션 역시 복식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김민자, 2004: 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식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복식미학의 핵심 연구 대상인 패션이 과연 예술인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패션은 대량생산을 위한 스타일과 사이즈의 표준화와 빠른 유행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술의 개념에 포함시키기에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패션이 예술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패션을 조형예술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많은 복식미학 논문에 기초가 된다 할 수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이란 무엇인가?

둘째, 패션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패션은 예술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션이 예술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Morris Weitz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the open concept of fashion)'을 중심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설

문 조사는 2005년 9월에서 2006년 6월 사이에 서울 시내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패션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학 관련 강좌 수강생 중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응답자 146명 중 60명은 의류학, 의상학, 섬유디자인, 섬유공학 관련 전공생이었고, 나머지 86명은 그 외에 전공자들이었다.

응답자들은 다음 세 질문에 답변하였다: 1. 예술이란 무엇인가? 2. 패션은 예술인가? 3. 패션이 예술이라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평상시에 예술과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자들의 자연스럽고 다양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는 응답 방식을 택하였다. 응답 결과는 공통되거나 비슷한 단어나 표현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응답자들이 예술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패션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과연 패션이 예술인지에 관해 논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복식 또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어 본 논문에서 이론적 틀로 사용할 Morris Weitz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III. 이론적 배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르네상스시대에 와서 의복 제작을 포함한 공예가 순수미술과 분리되면서 복식과 관련된 전업 공예가들의 지위는 상당히 떨어져 수공업자에 가깝게 되었다. 의상 디자인이 수공업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여왕 Marie Antoinette의 디자이너였던 Rose Bertin에 이르러서였다. 이후 1858년 오프 꾸뛰르의 시원인 Charles F. Worth의 살롱이 문을 열었는데, Worth는 미와 그것이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황제와 논하였다. 또한, 그는 스스로 색채 면에서 Delacroix의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함은 물론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고 예술품이라 칭하였다고 한다(양숙희, 1997: 42; 김민자, 1989). 따라서, 19세기 중반 이후 Worth와, 같은 시기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의 중심에 있던 Morris에 의해 복식을 예술로 보는 시각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한편, 예술가들 또한 르네상스시대부터 복식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Pisanello, Michelangelo, da Vinci, Dürer, Cranach 등의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복식을 그들의 작품에 묘사했음은 물론 의상, 섬유, 자수 등을 디자인했다. 18세기에 와서는 Watteau를 비롯한 상류사회 화가들이 그들의 모

드화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모드 잡지 *Gallerie des Modes*에 의상 디자인을 발표했다. 또한, David는 프랑스혁명 이후 그리스풍의 의상을 디자인해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스타일의 의복이 널리 유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영국의 Hunt, Rossetti, Millais, Morris 등이 왕립예술원의 보수적 전통주의에 반발하여 결성한 라파엘전파(Pre-Raphaelite)와 예술시상주의를 주장한 Wilde, Whistler 등을 중심으로 한 유태주의(aestheticism)가 개혁 의상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여성의 몸을 압박하고 비실용적이며 인위적인 복식과는 대조되는 혈렁하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 형의 의복을 미적으로 우수하게 평가하였다. 예술가들 사이의 이러한 개혁 복식의 제안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과 복식 또는 패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Mackrell, 2005: 13; 양숙희, 1997; 김정선, 1996; 이주연, 1992; 김민자, 1989).

예술과 복식 또는 패션 간의 상호 영향 및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정홍숙(1989)은 그의 박사 논문에서 복식의 조형예술성을 규명하여 복식을 예술의 한 장르로 정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르누보(Art Nouveau) 예술양식과 아르데코(Art Deco) 예술양식의 복식과 다른 조형예술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의 복식이 형, 선, 색조, 재질 면에서 동일한 양식의 다른 조형예술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홍숙(1989)은 복식이 독립된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민자(2004: 43-49; 1989) 역시 19세기 후기 인상주의 작품과 당시 유행 의상의 조형미 비교를 통해 실루엣, 선, 색채, 질감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의상디자인의 예술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또한, 여러 학자들이 밝힌 예술의 정의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첫째, 예술작품은 인간 행위의 상징적 산물이다. 둘째, 예술 작품 창조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셋째, 예술이란 표현이다. 넷째, 예술은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간 행위의 창조물이다. 그는 이와 같은 예술의 특징을 복식도 가지고 있음을 들어, 복식 또한 예술의 한 장르로 설명하였다(김민자, 2004: 65-70; 1989).

또한, Kim(1998)은 1980년대 이후 예술 전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패션이 예술인지에 관한 예술 비평가들의 의견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부 예술 비평가들은 개인적 창작 산물인 예술의 정신적, 영구적, 비역동적, 비상업적 특성을 산업적 산물인 패션의 실용적, 일시적, 역동적, 상업적 특성과 비교하면서 패션이 예술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반면, 다른 예술 비평가들은 예술이 대중문화와 패션으로부터 영

감을 얻게 되면서 그 영구적 특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패션의 상업적 성격은 대중에 가까워 질 수 있는 장점이며 위대한 예술가와 디자이너 모두 자신의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패션과 예술은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Kim(1998)은 패션이 예술로서 미적 비평의 대상이라 설명하였다.

이 밖에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 팝아트, 옵아트 등의 예술 사조와 복식 또는 패션과의 관계를 고찰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의 개념을 포함한 복식과 예술의 관계는 긴밀하며, 나아가 복식을 예술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복식이 예술일 수 없는 이유와 의견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이유와 의견과 더불어 복식을 예술로 볼 수 있는 논리적 또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하겠다.

IV. Morris Weitz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

Weitz(1967)는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을 제안하기에 앞서 형식주의(formalism), 주장주의(emotionalism), 직관주의(intuitionism), 유기체론(orgnicism), 주의주의(Voluntarism) 등을 포함한 예술 이론을 소개하였다. 형식주의자들은 예술의 특성을 조형적 요소 간의 관계, 즉 선, 색채, 형, 부피 등의 조합에 의한 형태를 위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반면, 주장주의는 예술의 핵심적 특성을 형태에 두기 보다는 심미적 매체에 투영된 감정의 표현이라 주장하였다. 예술가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예술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직관주의자들은 예술을 이미지와 직관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과학적 또는 도덕적 내용이 결여된 개념화와 행위의 1차원적 단계의 표현이라 하였다. 유기체론자들은 예술작품을 부분간의 독특한 상호관계로 정의하였다. 한편, 주의주의자인 Parker(1953)는 앞의 예술 이론들이 모든 예술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출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예술을 정의하려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Parker(1953)는 예술의 구성 요소로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구현체, 이를 공인하는 언어, 그리고 이 둘의 조화를 들었다.

Weitz(1967)는 이와 같은 기존의 예술 이론들이 한정된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예술의 복잡성(complexity)을 무시한 채 모든 예술의 공통된 특성을 들어 예술을 정의내릴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을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는 닫힌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열린 개념으로 보았다. Weitz(1967)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적 시각은 Wittgenstein(1953)의 '가족 유사성'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Wittgenstein(1953)은 가족 유사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게임의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존재하지조차 않는 모든 게임의 공통성을 적용해 게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게임들 간의 유사성을 이용해 게임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Weitz(1967)는 예술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여러 예술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해 구분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라 설명하였다.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적 시각은 새로운 예술 운동과 형태를 기존 예술과의 유사성을 이용해 예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술과 많은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패션을 예술적 측면에서 논하는데 Weitz(1967)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V. 설문 조사 결과

설문지에 대한 조사 대상자 146명의 응답 내용을 각 문항 별로 분석하였다. 응답 내용은 유사한 표현이나 단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문항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응답 방식이 자유 기술인 관계로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답변을 한 경우가 있으므로 <표 1>의 응답자 수의 총합은 조사 대상자였던 146명 보다 높게 나왔다.

응답 내용을 보면 예술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 응답자들이 7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구체적인 답변 내용으로는 미적인 또는 아름다움의 표현(16명), 개인의 생각이나 정신의 표현, 시대적 상황이나 정신의 표현 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을 '독창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34명 있었는데, 독특한 것, 창조적인 것, 새로운 시각의 제시, 희소성이 있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 답변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표 1> 예술의 특성에 관한 응답

응답 내용	응답자 수
표현하는 것	77
독창적인 것	34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	28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20
특정 행위 또는 사물	10
가치 있는 것	9
형식을 가진 것	3
기타	8

는 예술을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28명 있었다. 이들은 예술을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 다수에 게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깨달음을 주는 것, 미를 느낄 수 있는 것(16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어 20명이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구체적인 답변으로는 정신적 여유를 주는 것,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 의식주 외에 충족을 주는 것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10명이 예술을 '특정 행위 또는 사물'로 보았는데, 예술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와 결과물을 의미했다. 또한, 9명이 예술을 '가치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 문화나 전통과 관련된 가치 있는 것, 후대에 남겨질만한 것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3명의 응답자가 예술을 '형식을 가진 것'으로 보았는데, 어느 틀 안에 정형화된 것, 하나의 채널을 통해 코드화된 것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 외에 기타 응답 내용으로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 '상업적이나 경제적인 성격이 아닌 것'이란 의견이 각각 2명, '보여지는 것,' '정의할 수 없는 것,' '심오한 것,'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 '패션은 예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46명 중 대다수인 114명이 패션을 예술이라 응답하였다. 나머지 32명 중 12명만이 패션을 예술이 아니라 응답하였고, 나머지 20명은 패션을 예술이기도 하고 예술이 아니기도 하다고 답하거나,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경계선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

세 번째 질문에서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패션을 예술로 보거나 또는 예술로 보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우선 패션을 예술이라 한 114명의 응답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이 예술인 이유는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71명이 답하였는데, 여기에는 미

<표 2> 패션이 예술인지 여부에 관한 응답

응답 유형	YES	NO	YES or NO	총합
응답자 수	114	12	20	146

<표 3> 패션이 예술인 이유

응답 내용	응답자 수
표현하는 것이므로	71
독창적인 것이므로	24
가치 있는 것이므로	15
감정에 변화를 주므로	12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므로	5
형식이 있으므로	5
기타	6

적인 표현(22명), 창조자(디자이너)와 착용자의 자기표현, 특별한 의도를 가진 표현 등의 구체적인 응답 내용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24명이 패션은 '독창적이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답하였는데, 창조적 사고, 새로운 것, 창의적 아이디어의 표출 등의 표현이 있었다. 이어 15명이 패션은 '가치 있는 것이므로' 예술이라 답하였는데, 잘 만들고 잘 입은 것, 미적 감각이 있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소장 가치가 있는 것, 문화나 전통적 가치가 있는 것, 예술성을 지닌 것 등의 응답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네 번째로는 12명이 패션을 '감정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하여 예술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감동, 보는 이나 입은 이를 즐겁게 하는 것, 삶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 또는 풍요롭게 하는 것 등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첫 번째 질문인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또는 문화의 일부인 이데올로기, 삶의 방식 등의 반영이란 표현을 '시대적 상황의 반영'으로 묶었는데 5명이 이와 관련된 응답을 하였다. 패션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예술로 본 응답자 역시 5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형화된 것, 스타일이 있는 것 등의 표현을 포함시켰다. 기타 '보여지기 위한 것이므로'라는 표현이 2명, '패션과 예술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예술이므로,' '기술을 요하므로,'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패션은 예술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패션을 예술이 아니라고 본 12명의 응답자들은 (<표 4>)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 우선 패션의 '상업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유행에 따른 일시성'과 다수를 겨냥하는 데서 오는 '적은 희소성'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한 개성의 표현'이고 '실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패션이 예술이 아니라는 의견도 각각 2명씩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모방인 경우가 많으므로'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중 일시성, 적은 희소성, 모방성은 패션의 상업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패션을 예술이기도 하고 예술이 아니기도 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20명 모두 패션이 예술인 이유는 디자이너나 착용자의 예술적, 미적, 사상적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라 답하였다. 반면, 패션이 예술이 아

<표 4> 패션이 예술이 아닌 이유

응답 내용	응답자 수
상업성 때문에	7
유행에 따른 일시성 때문에	3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3
착용자 입장에서 개성의 표현일 뿐이므로	2
실용성 때문에	2
단순 모방인 경우가 많으므로	1

니기도 한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는데, 패션이 지닌 상업성, 일시성, 소모성을 지적한 응답자가 14명이었고, 패션이 모방이거나 예술적 의지가 결여된 개성 없는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란 응답자가 6명 있었다.

VI. 결론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예술의 특성으로 표현성, 독창성, 감정에 영향을 주는 특성, 삶을 풍요롭게 하는 특성, 특정 행위 또는 사물, 가치성, 형식성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예술의 특성 중 대부분은 Tatarkiewicz(1980: 27-33)가 종합 열거한 예술의 특성들과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우선 예술은 미를 산출한다는 특성을 지녔는데, 미는 넓은 의미에서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뜻하므로 조화로움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포함한 일종의 감탄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다음으로, 예술은 실재를 재현 또는 재생, 즉 모방하는 특성이 있다 하였다. 이러한 예술의 특성은 회화, 조각, 시 등 일부 예술의 장르에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그는 예술의 특성으로 형식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예술 외에도 형식을 지니는 것들이 많으므로 형식을 지닌다 해서 모두 예술이 될 수는 없다 하겠다. 예술의 또다른 특성으로는 표현성을 들었는데, 이는 일부 유파의 목표에만 해당된다 지적하였다. 다섯번째로 예술은 미적 경험을 낳는다 하였다. 하지만, 인간은 예술 외의 것에서도 미적 경험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예술이 충격을 낳는다는 점을 들었는데, 감정의 범위가 미적 경험에 의한 황홀경을 넘어 충격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외에도 예술의 특성으로 창조성을 들었다. 이는 설문 조사 대상자들이 예술의 특성으로 밝힌 내용 중 표현성, 독창성, 감정에 영향을 주는 특성, 삶을 풍요롭게 하는 특성, 형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민자(1989; 2004: 65-70)는 '인간 행위의 상징적 산물,' '창조에 있어서의 법칙성,' '표현성,' 그리고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간 행위의 창조물'을 들어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창조에 있어서의 법칙성은 예술의 형식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Tatarkiewicz(1980: 44-50)가 언급한 예술의 특성 중 형식성, 표현성, 창조성과도 중복되는 내용이고, 또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언급한 예술의 특성 중 표현성, 독창성, 형식성과도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인간 행위,' '산물,' '창조물' 등은 응답 내용 중 '특정 행위 또는 사물'이란 항목과 통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언급한 대부분의 예술 특성은 전문가들이 밝힌 예술의 특성이나 본질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예술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응답자 146명 중 패션을 예술이라 답한 114명은 패션이 예술인 이유를 표현성, 독창성, 가치성, 감정에 변화를 주는 특성, 시대적 상황의 반영, 형식성 등으로 답했다. 또한, 패션이 예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한 조사 대상자 20명 모두 패션의 미적 특성을 포함한 표현성을 패션이 예술인 이유로 들었다. 이 중 표현성, 형식성, 독창성은 Tatarkiewicz(1980:44-50)와 김민자(1989; 2004: 65-70)가 밝힌 예술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이고, 감정에 변화를 주는 특성은 미적 경험이나 충격과 관계가 있으며, 시대적 상황의 반영은 실재의 재현 또는 재생과 관련이 있다.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란 항목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으로 세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패션이 예술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모두가 첫 번째 문항에서 자신이 예술의 특성으로 답했던 내용을 다시 세 번째 문항에서 패션이 예술인 이유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패션이 예술인 이유로 답변한 내용은 응답자가 그 것을 예술의 특성이나 본질로 생각해서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가 예술의 특성으로 표현성을 들었지만, 패션이 예술인 이유로 독창성을 들었다면, 독창성 역시 예술의 특성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문가들이 밝힌 예술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패션이 예술이라 답한 응답자들(114명)과 패션이 예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한 응답자들(20명) 대다수가 전문가들이 밝힌 예술의 본질 내에서 패션이 예술과 공유하는 특성을 찾았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밝힌 예술의 특성은 물론 패션과 예술의 공통된 특성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Weitz(1967)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을 적용해 보면, 상당수의 응답자들에 의해 인지되고 있는 패션과 예술의 공통적 특성을 바탕으로 패션도 예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Weitz(1967)에 의하면, 예술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그 복잡성에 의해 모든 예술 장르의 특성을 포괄하는 닫힌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고, 기존 예술 장르 사이의 공통된 특성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떠한 행위 또는 사물이 기존 예술 장르들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행위 또는 사물은 기존 예술 장르들과 혹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통된 특성에 의해 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은 닫힌 개념이 아닌 열린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패션은 응답자들이 밝힌 기존 예술과의 차이점(상업성, 일시성, 소모성, 적은 희소성, 실용성, 모방성, 예술적 의지가 결여된 단순

한 착용자의 개성 표현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답자들이 인지한 예술과의 공통성에 따른 충분한 유사성에 의해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패션이 예술일 수 없는 이유로 응답자들이 언급한 내용 중 상업성, 일시성, 낮은 희소성 등은 예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특성들이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에 기반한 팝아트는 소모성, 일시성,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난지, 1993: 316-329). 또한, Kim(1998)이 조사한 일부 예술 비평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늘날 예술 작품 중에는 패션 소품을 직접 차용하거나 사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 예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의해 예술은 더 이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패션의 상업성은 오히려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라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Weitz(1967)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의 시각에서 볼 때 많은 응답자들이 인지한 패션과 예술의 유사성에 의해 패션은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과 예술의 차이점으로 지적된 내용들 역시 현대 예술의 변화와 함께 더 이상 차이점이 아닌 패션과 예술의 유사성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서울시내 대학생 146명에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이상의 연구 내용이 복식미학에 있어서 패션을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연구할 수 있는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 참고문헌

- 강손근(역) (1995). 미와 예술의 논리. 木幡順三의 美と 藝術의 論理. 서울: 집문당.
- 김민자 (1989).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인상주의와 의상. *대한가정학회지*, 27(2), 1-19.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서울: 교문사.
- 김정선 (1996).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희 (편역) (1997). 복식과 예술: 예술가와 모드. E. Thiel의 *Künstler und mode: Vom modeschöpfer zum modegestalter*. 서울: 교학연구사.
- 윤난지 (역) (1993). 20세기의 미술. N. Lynton의 *The history of modern art*. 서울: 예경.
- 이주연 (1992). 라파엘 전파 회화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범송, 김해룡 (1990). 미학에의 초대. 서울: 이웃.
- 정홍숙 (1989).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 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Kefgen, M., & Tou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ew York: Macmillan.
- Kim, S. B. (1998) Is fashion art? *Fashion Theory*, 2(1), 51-72.
- Mackrell, A. (2005). *Art and fashion: The impact of art on fashion and fashion on art*. London: Batsford.
- Parker, D. (1953). The nature of art. In E. Vivas & M. Krieger (Eds.), *The problems of aesthetics* (pp. 90-104). New York: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 Roach-Higgins, N. E., & Eicher, J. B. (1992).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4), 1-8.
- Sproles, G. B. (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Burgess.
- Tatarkiewicz, W. (1980).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Warszawa: PWN-Polish scientific publishers.
- Weitz, M. (1967). The role of theory in aesthetics. In M. C. Beardsley & H. M. Schueller (Eds.), *Aesthetic inquiry: Essays on art criticism and the philosophy of art* (pp. 3-11). Belmont, CA: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 Wittegenstein, L.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G. E. Anscombe, Trans.). New York: Macmillan.

(2006년 9월 22일 접수, 2006년 11월 14일 채택)